

## 치 사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향기로운 봄소식과 더불어, 국군 불교총신도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군불교 지도자와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고, 국군장병의 무운장구와 신행활동의 서원을 다지는 일은 소중한 정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군불교는 어느 시기보다 왕성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총신도회의 신행활동 또한 저마다의 공덕을 한껏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봉행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무량수전 낙성은, 군불교의 위상을 넘어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종단적이면서도 현시대의 소중한 성취라 할 것입니다.

군종교구 본사주지 정우스님의 원력과 이에 따르는 왕성한 활동은 불교계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군불교의 발전은 큰 걸음들도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불총의 발전을 이루는 큰 동력이면서도, 다시금 군불총의 한결같은 정진으로 군종교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깊은 신심과 신행을 동력으로 삼아, 주어진 소임에 매진하시는 총신도회의 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대한 공적들이 있기에 우리 군불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겠다는 국방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국운융창을 위한 소중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으며, 정신을 가다듬는 소중한 신행활동을 보다 열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단단한 발원으로 외양과 내실 모두에서 군불교 발전에 헌신하신 김현집 장군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깊은 신심으로 새롭게 신도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구홍모 사령관님께도 앞날의 축원과 더불어, 모두의 마음처럼 큰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뜻 깊은 법회가 모두의 축하속에서 개최하게 되어 치하의 마음이 가득하며, 군종교구와 군불총의 커다란 원력과 오랜 실천들이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모두의 행복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2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